



2024년 9월 27일

Weekly Macro, 무엇을 봐야 할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Economist 김유미 helloym@kiwoom.com| RA 조재환 direction@kiwoom.com

키움증권

G2 경기 우려 완화와 달러 움직임

다음 주에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는 정부의 부양정책 발표 이후 지표들의 추가 하락이 제한될 경우 경기 회복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제조업 체감경기와 고용보고서가 시장 예상 수준에 부합할 경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 대선을 앞두고 있으며 양당 후보 모두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중국 경기 낙관론이 약화될 수 있다. G2 경기 우려 완화에 달러의 하락 폭이 확대될 수 있으나 지속성을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주에는 미국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중국에서 정책당국의 부양조치로 경기 회복 기대가 조성되었다. 이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주식시장의 상승과 미 달러화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중국에서는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고 부동산 관련 정책 지원, 증시 부양 등 경기 부진에 대응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정책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미국에서는 주초 소비심리가 부진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되기도 했지만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았던 신규주택판매나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감소 등에 관련 우려가 완화되었다. 또한, 연준위원들이 지난 9월 50bp 금리 인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경기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시켜주었다.

미국과 중국 G2의 경기에 대한 우려 완화는 위험자산에 우호적으로 작용하였다. 뉴욕증시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하락하였다. 다음 주 발표될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시장 예상대로 소폭 개선된다면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더 힘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 역시 ISM 제조업지수가 소폭 반등하고 고용보고서에서 비농가 신규고용이 10만명대에서 시장 예상에 부합한다면 경기 연착륙 전망을 보다 뒷받침해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내 위험회피성향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보이며 미 달러화에 약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 달러화가 일시적으로 하락 폭이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미 달러화는 추세적으로 하락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잠시 높아질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중국의 정책적인 대응 여력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는 가운데 부채조정에 따라 기대만큼 수요 회복이 뒤따라지 못할 수 있다. 또한, 11월 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양당 후보들의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다시 미-중 갈등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 이는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중국 경기 회복을 제약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G2의 경기 회복 모멘텀은 기대보다 짧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달러화 역시 잠시 약세 압력이 강화될 수 있겠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사,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Weekly Macro, 무엇을 봐야 할까?

다음주 주간 매크로 이벤트 (9/30~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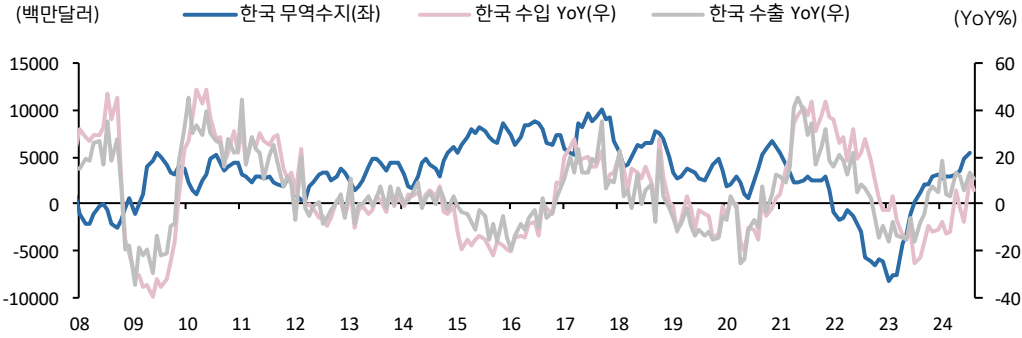
일자	주요 경제지표 일정 및 이벤트	컨센서스	이전치(잠정치)
9/30	한국 산업생산 (YoY) (8 월)	2.0%	5.5%
	한국 산업생산 (MoM) (8 월)	3.3%	-3.6%
	중국 제조업 PMI (9 월)	49.5	49.1
	중국 비제조업 PMI (9 월)	50.4	50.3
	중국 Caixin 제조업 PMI (9 월)	50.5	50.4
	중국 Caixin 서비스 PMI (9 월)	51.6	51.6
	독일 CPI (MoM) (9 월)		-0.1%
	독일 CPI (YoY) (9 월)		1.9%
	미국 MNI 시카고 PMI (9 월)	46.8	46.1
	미국 달러스 연준 제조업활동지수 (9 월)	-10.6	-9.7
10/1	한국 수출액 (YoY) (9 월)	6.6%	11.2%
	한국 수입액 (YoY) (9 월)	3.8%	6.0%
	한국 무역수지 (9 월)	3.91M	3.77B
	독일 CPI (YoY) (9 월)		2.2%
	미국 제조업 PMI (9 월, 확정치)	47	47.9(47.0)
	미국 ISM 제조업구매자지수 (9 월)	47.6	47.2
	미국 노동부 JOLTs (구인, 이직 보고서) (8 월)	-	7.673M
10/2	한국 CPI (MoM) (9 월)	0.4%	0.4%
	한국 CPI (YoY) (9 월)	1.9%	2.0%
	유로존 실업률 (8 월)	-	6.4%
	ADP 비농업부문 고용 변화 (9 월)	123K	99K
10/3	유로존 서비스 PMI (9 월)	-	50.5
	유로존 생산자물가지수 (MoM) (8 월)	-	0.8%
	유로존 생산자물가지수 (YoY) (8 월)	-	-2.1%
	미국 서비스 PMI (9 월)	-	55.7(55.4)
	미국 ISM 비제조업구매자지수 (9 월)	51.5	51.5
10/4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MoM) (9 월)	0.3%	0.4%
	미국 비농업고용지수 (9 월)	140K	142K
	미국 경제활동참가율 (9 월)	-	62.7%
	미국 실업률 (9 월)	4.2%	4.2%
연준위원 발언	미 연준의장(9/30), 애틀란타, 보스턴, 리치몬드 연은 총재(10/1), 클리블랜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보우만 미 연준 이사(10/2),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10/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Weekly Macro, 무엇을 봐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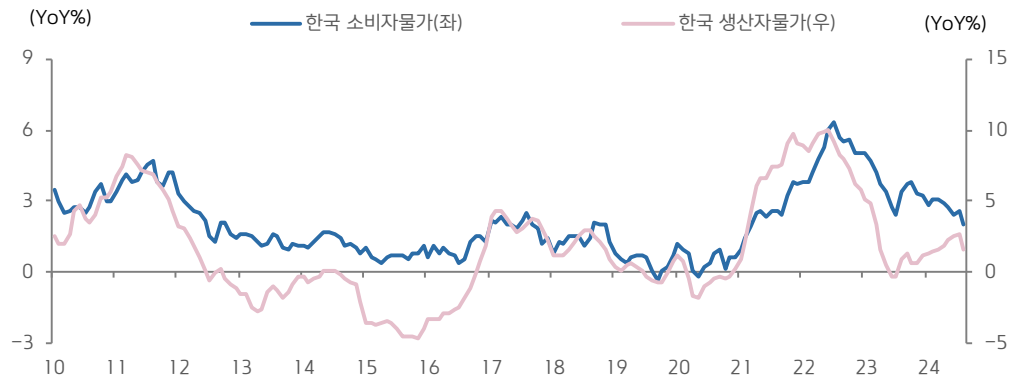
다음주 눈 여겨 봐야 할 지표

한국의 수출입 지표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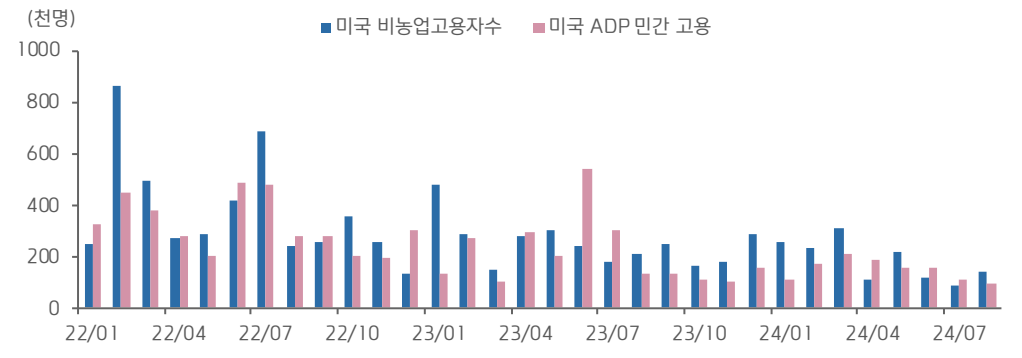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CPI 및 PPI의 변화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비농업고용자수 및 ADP 민간 고용의 변화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금주 글로벌 경기 동향 및 이벤트 (9/23~9/27)

조업일수 감소에 한국 9월 1일~20일 수출액·수입액 모두 하락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1일~20일 한국의 수출액은 35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하며 전월치(+18.4%)를 하회. 수입액은 34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5% 감소하며 전월치(+9.9%)를 하회했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8억 달러 흑자를 기록. 다만 수출액 감소는 전년 동월대비 조업일이 2.5일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9월 일평균 수출액은 27.4억 달러로 전년 동월(23.2억 달러) 대비 18% 가량 상승.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전년 동기대비 기준, 품목별로는 반도체(26.2%), 컴퓨터 주변기기(75.6%)의 경우 증가했으나 승용차(-8.8%), 석유제품(-5.0%)이 감소했음. 여기에 국가별로 보면 미국(-5.9%), EU(-15.1%)에 대한 수출액이 감소. 수입의 경우 원유(-14.8%), 기계류(-1.4%)의 감소의 영향을 받음. 특히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10.9% 감소하며 수입액 하락에 영향

미 컨퍼런스보드 소비자대지수, 예상치를 크게 하회

24일 미 컨퍼런스보드에 따르면, 컨퍼런스보드 8월 소비자신뢰지수는 98.7을 기록하며 예상치(103.9) 및 전월치(105.9)를 모두 큰 폭으로 하회. 이로써 CB 소비자신뢰지수는 지난 2021년 8월 이후 최대 폭의 하락을 기록. 특히 지수의 다섯개의 세부지표가 모두 하락했으며 나이 기준으로는 35~54세, 소득 기준으로는 연소득 5만 달러 미만 소비자의 신뢰도가 가장 크게 하락.

컨퍼런스보드 소비자대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경기침체 우려가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음. 전날인 23일 컨퍼런스보드에서 발표한 미국 8월 경기선행지수(LEI) 또한 100.2를 기록, 전월대비 0.2% 하락하며 6개월 연속 하락 중. 이에 대해 컨퍼런스보드 측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로 내년의 경제활동은 개선될 것으로 보면서도, 올해 하반기에는 고금리 및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요 둔화가 예측된다고 전망

호주 RBA 총재, 기준금리 동결 후 매파적 발언을 통해 금리 인하 가능성 부정

24일 호주 RBA는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호주의 기준금리를 4.35%로 유지하기로 결정. 이로써 호주의 기준금리는 지난 2023년 11월 4.35%로 결정된 이후 7회 연속 동결되었음. 미셸 블록 호주 RBA 총재는 통화정책회의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가 시작된 다른 국가들과 달리 호주에서는 노동시장 악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발언.

그러나 미셸 블록 RBA 총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호주의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지난 8월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을 검토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톤다운 된 것이 그 근거. 그러나 RBA는 26일 금융안정성보고서에서 호주의 주택 소유자 중 약 2%가 디폴트 위기에 처해 있다며, 금리가 인하 시 가계부채 증가세로 인해 부채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기초 유지

Weekly Macro, 무엇을 봐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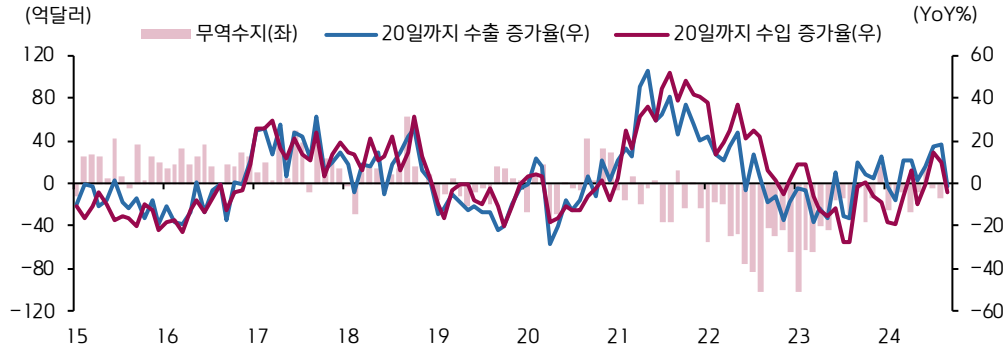
금주 주간 매크로 이벤트

일자	주요 경제지표 일정 및 이벤트	발표치	컨센서스	이전치(잠정치)
9/23	한국 ~20 일 수출 (YoY) (9 월)	-1.1%	-	18.5%
	한국 ~20 일 수입 (YoY) (9 월)	-4.5%	-	10.1%
	유로존 제조업 PMI (9 월)	44.8	45.7	45.8
	유로존 마켓 종합 PMI (9 월)	48.9	50.6	51.0
	유로존 서비스 PMI (9 월)	50.5	52.3	52.9
	미국 시카고 연준 국가활동지수 (8 월)	0.12	-0.20	-0.42
	미국 제조업 PMI (9 월)	47.0	48.6	47.9
	미국 마켓 종합 PMI (9 월)	54.4	54.3	54.6
	미국 서비스 PMI (9 월)	55.4	55.3	55.7
9/24	한국 PPI (YoY) (8 월)	1.6%	-	2.6%
	한국 PPI (MoM) (8 월)	-0.1%	-	0.3%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 (9 월)	85.4	86.1	86.4
	미국 FHFA 주택가격지수 (MoM) (7 월)	0.1%	0.2%	0.0%
	미국 S&P/CS 20 대도시 주택가격지수 (YoY) (7 월)	5.9%	5.9%	6.5%
	미국 CB 소비자신뢰지수 (9 월)	98.7	103.9	105.6
	호주 9 월 RBA 통화정책회의	4.35%	4.35%	4.35%
9/25	미국 신규 주택판매 (8 월)	716K	700K	751K
	미국 신규 주택판매 (MoM) (8 월)	-4.7%	-5.3%	10.3%
9/26	미국 내구재수주 (MoM) (8 월)	0.0%	-2.6%	9.9%
	미국 GDP (QoQ) 확정치 (2 분기)	3.0%	2.9%	1.6%(3.0%)
	미국 잠정주택판매 (MoM) (8 월)	0.6%	1.0%	-5.5%
9/27	미국 근원 PCE 물가지수 (MoM) (8 월)		0.2%	0.2%
	미국 근원 PCE 물가지수 (YoY) (8 월)		2.7%	2.6%
	미국 PCE 물가지수 (MoM) (8 월)		0.1%	0.2%
	미국 PCE 물가지수 (YoY) (8 월)		2.3%	2.5%
	미국 미시간대 1 년 기대인플레이션 확정치 (9 월)		-	2.7%
	미국 미시간대 5 년 기대인플레이션 확정치 (9 월)		3.0%	3.1%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기대지수 (9 월)		-	73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9 월)		69.3	69
연준위원 발언	애들랜타, 시카고,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9/23), 보스턴, 뉴욕,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9/26), 미 연준 의장, 부의장, 쿠글러 연준 이사(9/26), 보스턴 연은 총재, 쿠글러 연준 이사(9/2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Weekly Macro, 무엇을 봐야 할까?

한국 1일~20일 무역수지, 수출액 및 수입액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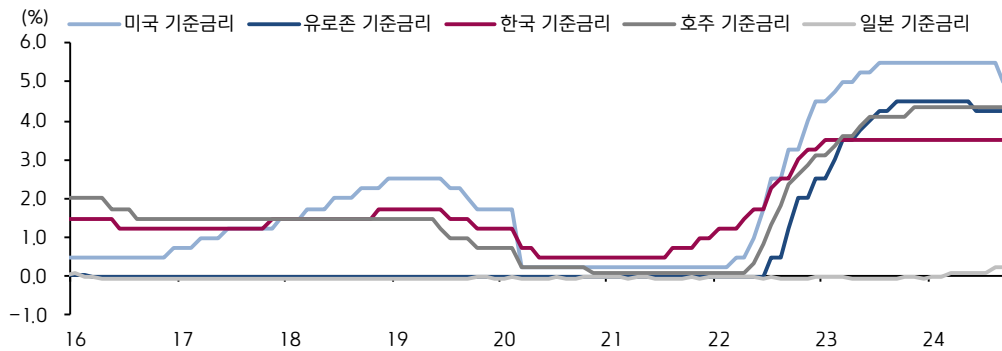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CB 소비자신뢰지수와 선행지수의 변화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GDP의 변화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